

빨리 문헌의 고평라부(gotrabhū)에 관한 고찰*

— 개념과 발전 양상을 중심으로

한상희

경북대학교 철학과 강사

kate1213@hanmail.net

I. 들어가는 말

II. gotta의 의미와 용법

III. ‘사람’으로서의 고평라부

IV. ‘마음 혹은 인식상태’로서의 고평라부

V. 나가는 말

요약문

본 논문은 니까야(Nikāya)에서 아비담마(Abhidhamma)에 이르기까지의 빨리(Pāli) 문헌에 나타나는 ‘고뜨라부(gotrabhū)’의 개념과 그 발전양상을 규명한 것이다.

빨리 문헌에는 ‘가계’나 ‘혈통’을 뜻하는 용어인 gotta의 산스크리트어 형태 ‘gotra’에 ‘bhū’가 결합된 술어인 gotrabhū가 나타난다. 고평라부가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 바르지 않은 행위를 하고 성자와 거리가 먼 사람으로 묘사되며 빨리 문헌에서 유일하게 부정적 의미를 가지는 『맛지마니까야』의 용례를 제외하고, 『앙굿따라니까야』와 논장인 『뿍갈라판넛피』 그리고 『까타왓투』에서는 성자의 첫 단계인 ‘예류도의 성자’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 S1A5B5A07091109).

이와 같이 성자가 되기 위한 상태나 조건을 갖춘 사람을 뜻하던 고평라부의 의미는 점차 그 사람이 지닌 마음이나 인식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빠띠삼비다막가』에서 고평라부는 열반으로 도약하는 최초의 상태와 선정이나 성자의 도과(道果)를 얻기 위해 극복되어야 할 요소가 제거된 상태를 나타내며 새로운 해석으로 전개되고, 『뵘타나』에서는 예류도의 직전에 한번만 경험되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며 명확히 하나의 인식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발전한다. 그리고 이것은 『위숫디막가』의 속행(javana)설로 이어져 고평라부는 선정을 얻을 때와 출세간에 들어갈 때 각각 본삼매와 성자의 도 직전의 속행의 마음을 의미하게 된다.

또한 주석서와 복주서의 설명에 따라 고평라부는 첫째, 범부나 장애 등의 부정적 요소와 이전의 도과와 같은 긍정적 요소들(gotta)의 극복(abhibhavana), 둘째, 성자라는 종성(gotta)의 생성(bhāvanā), 셋째, 사문이라는 이름뿐인 종성(gotta)의 유지(dhāraṇa)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제어

고뜨라부, 종성, 성자, 열반, 니까야, 빠띠삼비다막가, 위숫디막가

I.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니까야(Nikāya)에서 아비담마(Abhidhamma)에 이르기까지의 빠리(Pāli) 문헌을 대상으로,¹⁾ 각 문헌에 나타나는 ‘고뜨라부(gotrabhū)’의 개념을 파악하고 그 발전양상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평라는 대승불교의 유식사상과 여래장사상의 핵심개념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니까야를 비롯한 빠리 문헌에서 이미 성자론 및 수행 단계론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기능하여 온 개념이다.

한역어(漢譯語) ‘종성(種性)’으로 주로 번역되는 산스크리트어(Sanskrit) ‘gotra’는 본래 ‘가계, 가족-인도 사회구성의 한 단위로서의 부계의 일족’²⁾을

1) 본고에서 논의되는 문헌은 4부 니까야(Nikāya)와 『아비담마 빠따까(Abhidhamma Piṭaka)』 및 그 주석들 그리고 『위숫디막가(Visuddhimagga)』이며, 『위나야 빠따까(Vinaya Piṭaka)』와 그 주석서는 주요 고찰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PTS를 저본으로 하며 제6차 결집판을 참고하였다.

2) 高崎直道 1966, 314.

의미하는 말이다. 이 단어의 빨리어 형태는 ‘곶따(gotta)’로, 초기불교 문헌에 속하는 니까야와 상좌부 아비담마 문헌에는 이러한 의미를 지닌 ‘gotta’의 용례가 발견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빨리 문헌에는 gotta의 산스크리트어 형태인 gotra에 bhū가 결합된 ‘고뜨라부(gotrabhū)’라는 술어가 나타나며,³⁾ 그것은 gotta가 가진 본래의 의미와 다른 특수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즉 빨리 문헌에서 이 술어는 ‘성자(聖者)의 직전 단계에 있는 사람’, ‘성자의 도(道)를 얻기 직전의 인식상태’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필자가 아는 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고평라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루어진 연구가 없다. 그러나 고평라부는 빨리 문헌 전반에 걸쳐 등장하며 범부(凡夫)와 성자의 과도기적 개념으로서 성자론과 수행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고평라부에 대한 고찰은 고평라부라는 술어의 의미 규명은 물론, 성자와 수행에 관련된 연구에도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평라부에 대한 선행연구의 수는 그리 많지 않지만, 어원학적으로 명백히 빨리어 형태에서 벗어나 있는 ‘gotrabhū’에 대한 기원과 유래 등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그 결과 많은 부분이 해명되었다.

일본의 여래장 전공 학자인 타카사키 지키도(高崎直道)는 「GOTRABHŪとGOTRABHŪMI」라는 논문을 통해 니까야와 각종 논장, 『위수디막가(Visuddhimagga, 清淨道論)』와 『위뭇디막가(Vimuttimaggā, 解脫道論)』에 나타나는 고평라부의 의미에 대해 정리·고찰하였으며, 고평라부와 고평라부미(gotrabhūmi)의 관계를 대승문헌과의 비교를 통해 밝히고 있다.⁴⁾ 그리고 인도·티벳 불교학자 D. Seyfort Rugg은 고평라부와 관련하여 『빠띠삼비다막가(Pāṭisambhidāmagga, 無礙解道)』와 그 주석서인 『삿담마빠까시니(Saddhammappakāsinī)』의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gotta와 gotra가 문맥에 따라 bhūmi와 동일하

3)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대승불교의 문헌에는 ‘gotra’라는 형태가 나타나는 데 반해, 빨리 문헌에는 ‘gotra’만 단독으로 등장하거나 이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은 보이지는 않고 항상 ‘gotrabhū’의 형태로만 나타난다.
 4) 高崎直道 앞의 논문, 313-336. 그는 이어서 앞의 논문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고평라부미에 대하여 대승『반야경(般若經)』의 십지(十地)를 중심으로 상세히 논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高崎直道 1967, 1-27.

거나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을 지니고 있고 gotta는 보호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불린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⁵⁾

또한, O.H. de A. Wijesekera는 『자따까(Jātaka, 本生經)』에 보이는 삭까(Sakka, 帝釋天)의 다른 이름인 ‘vatrabhū’가 베다어(Vedic) ‘vr̥trahan’에서 유래했음을 밝히고, 고프라부도 이와 같이 ‘gotrahan(고뜨라의 파괴자)’에서 발전했을 것으로 유추하며 ‘속세의 지위, 상태를 버린 자’의 의미로 확립되었다고 한다.⁶⁾ O. von Hinüber도 동일한 의견을 피력한다. ‘vatrabhū’가 산스크리트 용어인 ‘vr̥trahan’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주석서에서 ‘-bhū’가 ‘abhibhavati’로 해석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고프라부 역시도 ‘gotrahan’ 즉 ‘destroying the lineage’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⁷⁾

그러나 Ruegg은 또 다른 논문에서 이들의 견해는 빨리 문헌 전체의 고프라부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한다.⁸⁾ 한편 K. R. Norman은 고프라부에 대한 앞선 연구들을 간략하고 명료하게 정리·비판하면서 고프라부에 대한 이른 시기의 두 가지 형태, 즉 gotra-han(고뜨라의 파괴)과 gotra-bhrt(고뜨라의 지지)를 제시한다.⁹⁾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재검토하면서 선행연구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주석서의 설명과 『위숫디막가』에 나타나는 인식과정 상에서의 고프라부에 대해 살펴보고, 빨리 문헌의 고프라부 개념과 그 변천 및 발전양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니까야에 나타난 고프라의 빨리어 형태인 곱따(gotta)의 용례를 통해 그 의미와 쓰임을 확인하고, 각 문헌에 나타나는 고프라부의 용례를 크게 ‘사람’을 나타내는 것과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구분하여 그 개념에 대해 상세히 고찰한다.

5) Seyfort Ruegg 1974, 199-210.

6) Wijesekera 2006(1979), 381-382.

7) von Hinüber 1994, 91-100.

8) Seyfort Ruegg 1981, 175-177.

9) Norman 1987, 37-39.

II. gotta의 의미와 용법

gotta는 ‘동일한 조상에게서 이어져 내려온 부계의 가계’를 뜻하는 말로,¹⁰⁾ 경전상에는 주로 개인의 이름을 의미하는 nāma라는 술어와 결합된 형태이거나 족성의 명칭 뒤에 연결되어 나타난다. 또한 jāti나 kūla 등 인도의 신분 혹은 계급을 보여주는 술어와 함께 나열되기도 하고, 사성계급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용례도 발견된다. 몇 가지 용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nāmagotta

빠하라다여, 마치 예를 들어 강가, 야무나, 아짜라와띠, 사라부, 마히와 같은 큰 강들이라도 큰 바다에 이르러 이전의 이름과 성을 버리고 ‘큰 바다’라는 이름으로 불리듯이, 바로 이와 같이 빠하라다여, 크샤트리야, 브라흐만, 바이샤, 슈드라의 네 가지 계급은 여래가 언명한 법과 율에 대해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여 이전의 이름과 성을 버리고 ‘사까의 아들인 사문’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¹¹⁾

2. 족성명+gotta

- ① 한때 세존께서는 꾸루의 깜마사담마라는 이름의 꾸루들의 마을에 있는 바라드와자곳따(바라드와자라는 족성을 가진 자) 바라문이 불을 모시는 사당에 풀로 만든 자리에 머무셨다.¹²⁾
- ② 그때 존자 갓짜야나곳따(갓짜야나라는 족성을 가진 자)가 세존에게 다가 갔다.¹³⁾
- ③ 벗이여, 찬나여, 나는 갓짜나곳따(갓짜나라는 족성을 가진 자) 비구에게

10) PED, 255.

11) AN. IV, 202.7-14.

12) MN. I, 501.28-30, “ekam samayaṃ bhagavā kūrūsu viharati kammāsadhammaṃ nāma kurūnaṃ nigamo, bhāradvājagottassa brāhmaṇassa agyāgāre tiṇasanthārake.”

13) SN. II, 17.1-2, “atha kho āyasmā kaccāyanagotto yena bhagavā tenupaṣāṅkami.”

훈계하신 세존의 앞에서 이 [가르침]을 들었고 [세존의] 앞에서 받아 지녔다.¹⁴⁾

④ 그때 갓사빠곳따(갓사빠라는 족성을 가진 자)라는 이름의 비구가 뺑까다에 살고 있었다.¹⁵⁾

⑤ 비구들이여, 지금 아라한·정등각자인 나는 고따따가 족성이었다.¹⁶⁾
그밖에 박가와곳따(bhaggavagotta, DN.III.2), 왓차곳따(vacchagotta, MN.I.481), 웨라핫짜니곳따(verahaccānigotta, SN.IV.121)등이 경전에 등장한다.

3. jāti 등과 나열

① 와셋타여, 그대들은 각기 다른 혈통(jāti), 다른 이름(nāma), 다른 족성(gotta), 다른 가문(kula)의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였다. ‘그대들은 누구인가’라고 질문 받으면 그대들은 ‘우리들은 사까의 아들인 사문이다’라고 대답한다.¹⁷⁾

② 태양이라 부르는 족성을 가지고 사까라 부르는 혈통을 가진 그 가문에서 출가한 사람으로, 왕이여 나는 감각적 욕망을 희구하지 않습니다.¹⁸⁾

③ 혈통을 자만하고 재산을 자만하고 족성을 자만하는 자는 친족을 멸시한다. 그것은 파멸로 가는 자의 문이다.¹⁹⁾

④ 비구들이여, 위뻘시 세존·아라한·정등각자는 크샤트리야 혈통이었고 크샤트리야 가문에서 태어났다. 비구들이여, 위뻘시 세존·아라한·정등각자는 꼰단냐가 족성이었다.²⁰⁾

14) SN. III, 134.28-30. “sammukhā me taṃ āvuso channa bhagavato sutam sammukhā ca paṭiggahitam kaccānagottaṃ bhikkhuṃ ovaḍantassa.”

15) AN. I, 236.25-26, “tena kho pana samayena kassapagotto nāma bhikkhu paṅkadhāyaṃ āvāsiko hoti.”

16) DN. II, 3.21-22, “ahaṃ bhikkhave etarahi arahaṃ sammāsambuddho gotamo gottena ahoṣim[PTS omit].”

17) DN. III, 84.14-17, “tumhe khv attha, vāseṭṭha, nānājaccā nānānāmā nānāgottā nānākulā agārasmā anagāriyaṃ pabbajitā. ke tumhe ti puṭṭhā samānā samaṇā sakyaputtīyāmhā ti paṭijānātha.”

18) Sn 423: ādiccā nāma gottena, sākiyā nāma jātiyā/ tamhā kulā pabbajito ’mhi rāja, na kāme abhipatthayaṃ//

19) Sn 104: jātitthaddho dhanatthaddho, gottatthaddho ca yo naro/ saññātiṃ atimaññeti, taṃ parābhavato mukhaṃ//

20) DN. II, 11.12-16, “vipassī bhikkhave bhagavā arahaṃ sammāsambuddho khattiyō jātiyā ahoṣi, khattiyakule

4. 사성계급(vanṇa)을 의미하는 gotta

- ① 족성에 의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크샤트리아가 으뜸이고, 신과 인간 가운데서는 지혜와 실천을 갖춘 이[明行足]가 으뜸이다.²¹⁾
- ② 나는 실로 브라흐만도 아니고 왕의 아들(크샤트리아)도 아니며, 바이샤도 아니고 혹은 그 누구도 아니다. 범부들의 족성을 확실히 알고서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고 현자로서 이 세상을 거닌다.²²⁾
- ③ 크샤트리아와 브라흐만의 친족, 다른 족성에 의해 보호받는 이들은 혈통에 대한 이야기를 무시하고 여러 감각적 욕망의 힘을 따랐다고 한다.²³⁾

gotta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姓)’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nāma와 결합되어 이름과 성(nāmagotta)을 나타낸다. 니까야에는 이 gotta의 종류가 여럿 소개되는데, 붓다의 성인 고타마를 비롯하여 바라드와자, 짚사빠, 췌단냐 등이 그것이다.²⁴⁾ 바라문이나 수행자들은 이름 대신 이 gotta로 자주 불렸던 것으로 보이며, 신분을 보다 자세히 나타내기 위하여 태생 혹은 혈통을 의미하는 jāti나 가문을 뜻하는 kula와 함께 나열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위의 용례 3)의 ②에서 보듯이 붓다의 gotta는 태양(ādicca)이라고도 불리고²⁵⁾ jāti는 사까(sakya)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까라는 붓다의 종족명은 jāti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udapādi. vipassī bhikkhave bhagavā araham sammāsambuddho koṇḍañño gottena ahoṣi.”

21) DN. I, 99.8-9; MN. I, 358.27-28; SN. I, 153.20-21; AN. V, 327.29-30: khattiyo seṭṭho janetasmiṃ, ye gottapaṭisārīno/ vijjācaraṇasampanno, so seṭṭho devamānuse ti//

22) Sn 455: na brāhmaṇo no ’mhi na rājaputto, na vessāyano uda koci nomhi/ gottaṃ pariññāya puthujjanānaṃ, akiñcano manta carāmi loke//

23) Sn 315: khattiyā brahmabandhū ca, ye caññe gottarakkhītā/ jātivādaṃ niraṅkatvā, kāmānaṃ vasamanvagun ti//

24) 바라문 계급 안에 49개의 gotra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이들은 Śaṅḍilya, Kaśyapa, Gautama, Bharadvāja와 같은 성선(聖仙)의 이름을 딴 것으로 추정된다. Monier, 364.

25) Nidd. I, 341.8-11, “ādiccabandhun ti. ādicco vuccati sūriyo. sūriyo gotamo gottena, bhagavāpi gotamo gottena, bhagavā sūriyassa gottaññātaṃ gottabandhu; tasmā buddho ādiccabandhū ti.” (ādiccabandhuṃ에서 ādicca는 태양을 말한다. 태양은 족성으로 고타마이고 세존도 족성으로 고타마이다. 세존은 태양의 족성의 일가이며, [태양의] 족성의 일족이다. 그러므로 붓다는 태양의 일족이다.)

알 수 있다. 그러나 신분을 나타내는 이러한 술어들은 그 쓰임이 반드시 일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브라흐만·크샤트리야·바이샤·슈드라의 네 계급은 바르나(Varṇa)라고 일컬어지며²⁶⁾, 다양한 gotta와 jāti는 이 네 계급 가운데 어느 한 계급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3)의 ④와 같이 이 계급들 자체가 jāti나 kula로 일컬어지기도 하고, 4)의 여러 예문에서 보듯이 gotta가 사성 계급을 직접적으로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처럼 니까야에서 gotta는 주로 사회적인 가계나 혈통, 더 나아가 사성계급을 나타낸다. 그렇지만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위숫디막가』를 비롯한 주석서에서 gotta는 ‘gotra’를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되며 그 의미와 용법이 확장된다.²⁷⁾

III. ‘사람’으로서의 고타라부

빨리 문헌의 고타라부 개념은 크게 ‘사람’을 나타내는 것과 ‘마음 혹은 인식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사람’을 나타내는 고타라부의 용례는 4부 니까야 가운데 『맛지마니까야(Majjhimanikāya)』의 한 곳과 『앙굿따라니까야(Aṅguttaranikāya)』의 두 곳, 논장 가운데 『뿍갈라판냐띠(Puggala-paññatti)』와 『까타왓투(Kathāvatthu)』에서 찾을 수 있다.

1. 4부 니까야의 고타라부

① 『맛지마니까야』의 고타라부

또한 아난다여, 미래에 가사를 목에 두른, 바르지 않은 행위를 하고 악한

26) MN, II, 128.2-3, “cattārome bhante vaṇṇā, khattiyā brāhmaṇā vessā suddā.” (세존이시여, 이 네 가지 바르나가 있습니다. 즉 크샤트리야, 브라흐만, 바이샤, 슈드라입니다).

27) cf. Seyfort Ruegg 1974, 204. Ruegg은 ‘사회적 혈통’을 뜻하는 gotta와 달리 gotra는 성자(ariya)의 예비 단계인 ‘정신적 혈통’을 나타내지만, 『위숫디막가』에서 puthujjanagotta와 반대 개념으로 등장하는 ariyagotta처럼 때로는 ‘정신적 혈통’의 의미를 가진다고 말한다.

법을 가진 고프라부들이(gotrabhuno)²⁸⁾ 있을 것이다. 그들이 바르지 않은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상가를 위해 보시를 할 것이다. 아난다여, 나는 그때에도 상가와 관련된 보시는 [그 공덕이]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한다.²⁹⁾

② 『앙굿따라니까야』의 고프라부1

비구들이여, 이 아홉 [종류]의 사람들이 공양받을 만하고 대접받을 만하며 보시받을 만하고 합장받을 만하며 세상의 위없는 복밭이다. 무엇이 아홉 [종류의 사람]인가? 아라한,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실천하는 사람, 불환자, 불환과의 체득을 위해서 실천하는 사람, 일래자, 일래과의 체득을 위해서 실천하는 사람, 예류자, 예류과의 체득을 위해서 실천하는 사람, 고프라부이다.³⁰⁾

③ 『앙굿따라니까야』의 고프라부2

비구들이여, 이 열 [종류]의 사람들이 공양받을 만하고 대접받을 만하며 보시받을 만하고 합장받을 만하며 세상의 위없는 복밭이다. 무엇이 열 [종류의 사람]인가? 여래·아라한·정등각자, 벽지불, 양면해탈자, 해해탈자, 신증자(身証者), 견지자(見至者), 신해탈자(信解脫者), 수신행자(隨信行者), 수법행자(隨法行者), 고프라부이다.³¹⁾

①은 보시에 관한 분별에 대해서 설해진 「닥키나위방가숫따(Dakkhiṇāvibhaṅgasutta)」에서 볼 수 있는데, 이 경전은 붓다의 이모이자 양모인 마하빠자빠띠(Mahāpajāpati)가 직접 세존에게 보시하기를 청했을 때 세존이 상가에 보시하도록 권하면서 설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열 네 종류의 개인에 대한 보시와 일곱 종류의 상가에 대한 보시에 대해 차례대로 설해진 후에, 바

28) 여기서 ‘gotrabhuno’는 高崎의 지적처럼 남성 복수 주격으로 보아야한다. cf. 高崎直道 앞의 논문, 315, 각주7.

29) MN. III, 256.6-10.

30) AN. IV, 373.2-8.

31) AN. V, 23.2-8.

르지 않은 행위를 하는 고프라부에 대한 보시라도 상가에 대한 보시는 그 공덕이 크다는 위의 설법이 이어진다. 경전에 설해진 상가에 대한 일곱 종류의 보시는 모두 비구 혹은 비구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구별되어 설해지는 고프라부는 비구·비구니와는 다른 종류의 상가의 일원이었을 것이다. 이 고프라부에 대하여 주석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고프라부들이란 [사문이라는] 종성(gotta)만을 지니고서 이름만 사문이라는 의미이다. **가사를 목에 두른 [사람들]**이란 가사를 목에 걸었다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가사의 일부를 손 또는 목에 묶고 걸어 다닐 것이다. 그러나 집에 그들[자신]의 자식과 처, 그리고 농업이나 상업 등의 본래의 일이 있을 것이다.³²⁾

이 설명에 따르면 고프라부란 이름만 사문으로 불리는 사람으로, 집에 아들과 아내가 있으며 출가자에게 걸맞지 않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사문이라는 신분으로 상가에 속해 있었고, 그러한 이유로 상가에 어울리지 않은 행동을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앙굿따라니까야』의 고프라부는 사쌍팔배 혹은 일곱 종류의 성자와 함께 공양받을 가치가 있는 고귀한 사람으로 나타난다. 이 두 용례는 고프라부가 니까야에서 정형적으로 설해지는 성자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성자의 첫 단계인 ‘예류도의 성자’의 전단계로서 존경받을만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주석서도 이점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각각 ‘예류도의 무간연(無間緣)인 위뻘사나의 마음을 갖춘 사람’³³⁾과 ‘열반을 대상으로 하

32) Ps. V, 74.3-8, “gotrabhuno ti gottamattakam eva anubhavamānā nāmamattasamaṇā ti attho. kāsāvakaṇṭhā ti kāsāvakaṇṭhanāmakā. te kira ekaṃ kāsāvakaṇṭhaṃ hatthe vā gīvāya vā bandhitvā vicariṣanti [PTS vicariyassanti]. gharadvāraṃ pana tesaṃ puttabhariyā kasivaṇṇijjādikammāni ca pākātikān’eva bhaviṣanti.” Ps-pt. III, 411.23-25, “gottaṃ vuccati sādharmaṇāmaṃ mattasaddo luttaniddiṭṭho, tasmā samaṇā ti gottamattaṃ anubhavanti dhārentī ti gotrabhuno. tenāha nāmamattasamaṇā ti.”(gotta는 공통된 이름을 말하며 matta라는 말은 제한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사문이라는 gotta만을 지니고 유지하기 때문에 고프라부들이다. 그래서 ‘이름만 사문이다’라고 하였다).

33) Mp. IV, 170.11-12, “gotrabhū ti sotāpattimaggassa anantarapaccayena sikhāpattabalavavipassanācittena

는 고프라부의 앓을 갖춘 사람³⁴⁾으로 설명된다. 즉 고프라부란 즉시 성자의 반열에 들 수 있는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고 열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범부와도 구별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앙굿따라니까야』의 이러한 고프라부 개념은 이어서 살펴볼 논장 『뿍갈라뻬냐띠』의 그것과 유사하다.

『맛지마니까야』와 『앙굿따라니까야』의 고프라부는 이처럼 대조적인 개념으로 나타난다. 『맛지마니까야』에서는 사문이라고 불리지만 성자와 거리가 먼 사람을 가리키는 반면, 『앙굿따라니까야』에서는 아직 성자의 단계에 들지는 않았지만 성자와 대등하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사실 상팔리 문헌에서 고프라부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용례는 『맛지마니까야』의 이 한곳뿐으로 나머지는 대부분 성자와 관련된 긍정적 의미를 가진다. 여기에서 고프라부의 특징으로 묘사되는 ‘가사[의 일부]를 목에 두른’ 모습은 붓다의 법을 바르게 지키지 않는 사문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나야 뻬따까(Vinaya Piṭaka)』의 주석서는 ‘가사[의 일부]를 목에 두른’ 사람들에 대해 “그것만으로 성스러움의 상징이 유지될 뿐이며(ettakameva ariyaddhājadhāraṇamattam) 다른 사문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다(sesaṃ sāmāññaṃ n’atthi)”라고 설명하면서³⁵⁾ 『맛지마니까야』의 이 대목을 인용하고 있다. 또한 정법(saddhamma)을 지키는 법과 그렇지 않은 법에 대해 설하고 있는 『앙굿따라니까야』의 한 경전³⁶⁾에 대한 주석서는 붓다의 정법이 사라지는 양상 가운데 하나인 ‘표식의 사라짐(liṅgāntaradhānam)’에 대한 설명에서 이 부분을 인용하고 있다.³⁷⁾

한편 이 주석에 대해 복주서는 고프라부의 설명으로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비구의 중성을 극복하고 파괴하기 때문에 고프라부들이다(bhikkhugo-

samannāgato.” (고프라부란 예류도의 무간연인 정점에 이른 힘을 가진 위뻬사나의 마음을 갖춘 사람이다).

34) Mp. V, 5.18-19, “gotrabhū ti sikhāpattavipassanābhūtena[PTS sikhāpattavipassanābhūto] nibbānārammaṇena gotrabhuñāṇena samannāgato.” (고프라부란 정점에 이른 위뻬사나의 상태인, 열반을 대상으로 하는 고프라부의 앓을 갖춘 사람이다).

35) Sp. II, 486.23-24.

36) AN. I, 17.31-18.19.

37) Mp. I, 90.1-91.2.

ttassa abhibhavanato vināsanato gotrabhuno)”라는 것이고, 둘째는 “사문이라는 종성만을 지니고 유지하기 때문에 고평라부들이다(samaṇā ti gottamattam anubhavanti dhārentī ti gotrabhuno)”라는 것이다.³⁸⁾ 이 가운데 두 번째 설명은 『맛지마니까야』의 복주서에서도 찾을 수 있는 반면,³⁹⁾ 첫 번째 설명은 이 문헌에서만 유일하게 발견된다. 이 설명에 따르면 gotra는 비구의 종성을 뜻하고, -bhū는 ‘극복(abhibhavana)’ 혹은 ‘파괴(vināsana)’를 의미한다. 즉 고평라부란 비구가 가져야 하는 바람직한 모습인 비구의 종성이 파괴되고 사라진 사람이라는 설명으로, 그 의미는 두 번째 설명과 다르지 않다.

2. 『뵁갈라뵁냏띠』와 『까타왓투』의 고평라부

『뵁갈라뵁냏띠』는 인간의 유형을 상세히 구분하고 그것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문헌인 만큼, 고평라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어떤 사람이 고평라부인가. 어떤 담마(dhamma)의 직후에 성자의 담마가 나타나, 그 담마를 갖춘 사람이다. 이 사람을 고평라부라고 한다.⁴⁰⁾

이에 따르면 고평라부란 성자의 담마가 나타나기 직전의 담마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아직 성자의 계위에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성자라고 할 수 없지만 범부와도 다르게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범부에 속한다고도 볼 수 없는 사람이다. 이 문헌에서 범부는 예류자가 되기 위한 요건인 ‘세 가지 속박도 버리지 못했으며 이것을 버리기 위한 실천도 하지 않는 사람(yassa puggalassa tīṇi saṃyojanāni appahīnāni, na ca tesam dhammānaṃ pahānāya paṭipanno)’으로 설명되기 때문이다.⁴¹⁾

38) Mp-pt. I, 119.22-24.

39) 각주 32 참조.

40) Pp. 12.38-13.1-3.

41) 『뵁갈라뵁냏띠』가 정의하는 범부는 ‘눈먼 범부(andhaputhujjana)’이다. 눈먼 범부란 주석서에서 설명되는 범부의 한 종류로 성자가 되기 위한 실천에 전념하는 ‘선한 범부(kalyānaputhujjana)’와

주석서는 “열반을 대상으로 하는 얇에 의해 모든 범부라는 명칭, 범부라는 중성, 범부라는 틀, 범부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성자라는 명칭, 성자라는 중성, 성자라는 틀, 성자라는 개념으로 뛰어들기 때문에 고평라부라고 불린다.”⁴²⁾라고 설명하는데, 이것은 아래에서 살펴볼 『위숫디막가』(Vism. 577)의 설명과도 유사하다.

한편 『까타왓투』의 고평라부는 그 의미에 대해 직접적인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쌍팔배(四雙八輩)의 성자와 함께 언급된다.

고뜨라부인 사람에게 예류도의 얇이 있는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 예류과의 체득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에게 예류과의 얇이 있는가 …
 일래과의 체득을 위해 … 불환과의 체득을 위해 … 아라한과의 체득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에게 아라한과의 얇이 있는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⁴³⁾

이 용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고평라부는 예류도에 들어가기 직전 단계의 사람을 나타낸다. 이것은 고평라부를 성자의 전 단계에 있는 사람으로 본 『앙굿따라니까야』와 『뽉갈라뽉냐띠』에서의 의미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IV. ‘마음 혹은 인식상태’로서의 고평라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인식상태’를 의미하는 고평라부는 『쿣다까니까야(Khuddakanikāya)』에 속하는 『빠띠삼비다막가(Paṭisambhidāmagga)』와

구분된다. cf. Pp-a. 183.

42) Pp-a. 184.5-9, “ayaṃ nibbānārammaṇena nāṇena sabbaputhujjanasaṅkhaṃ puthujjanagottaṃ puthujjanamaṅgalaṃ puthujjanapaññattim atikkamitvā ariyasāṅkhaṃ ariyagottaṃ ariyamaṅgalaṃ ariyapaññattim okkamanato gotrabhūpuggalo nāma vuccati.”

43) Kv. I, 309.1-9. 이밖에도 동일한 내용을 Asekhañāṅakathā(Kv. I, 304); Anāgatañāṅakathā(Kv. I, 313-314)에서 볼 수 있다.

논장 가운데 하나인 『뺏타나(Paṭṭhāna)』, 그리고 이 두 문헌의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위숫디막가(Visuddhimagga)』에서 볼 수 있다.

1. 『빠띠삼비다막가』의 고평라부

『빠띠삼비다막가』에는 4부 니까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술어인 ‘고뜨라부의 얇(gotrabhūñāṇa)’과 ‘고뜨라부의 담마(gotrabhūddhamma)’가 새롭게 등장한다. 이 두 술어에 대한 설명은 『위숫디막가』에도 그대로 인용되는데, 고평라부의 얇은 첫 번째 도의 지혜 바로 직전 단계로서, 고평라부의 담마는 예류자에서 아라한에 이르는 성자들이 각각 자신의 과의 삼매를 얻음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된다.

1) 고평라부의 얇

고뜨라부의 얇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어떤 이유로 외부로부터 벗어남과 물리남에 대한 지혜가 고평라부의 얇 인가. 일어남을 극복하기 때문에 고평라부이다(uppādam abhībhuyatī ti gotrabhū). [生死]유전(流轉)을(pavattam) … 표상을(nimittam) … [업을 쌓는] 노력을(āyūhanam) … 결생(結生)을(paṭisandhim) … [사후에] 갈 곳을(gatim) … 재생을(nibbattim) … 생을(upapattim) … 탄생을(jātim) … 늙음을(jaram) … 병을(byādhim) … 죽음을(maraṇam) … 슬픔을(sokam) … 비탄을(paridevam) … 절망을(upāyāsam) … 외부의 행의 표상을(bahiddhā-sāṅkhāranimittam) 극복하기 때문에 고평라부이다. 불생으로 도약하기 때문에 고평라부이다(anuppādam pakkhandatī ti gotrabhū) … 소멸인 열반으로 도약하기 때문에 고평라부이다(nirodham nibbānam pakkhandatī ti gotrabhū).

일어남을 극복하고 불생으로 도약하기 때문에 고평라부이다 … 외부의 행의 표상을 극복하고 소멸인 열반으로 도약하기 때문에 고평라부이다. 일어남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고평라부이다 … 소멸인 열반으로 도약하기 때문에 고평라부이다.

일어남에서 벗어나서 불생으로 도약하기 때문에 고프라부이다 ... 외부의 행의 표상에서 벗어나서 소멸인 열반으로 도약하기 때문에 고프라부이다.

일어남에서 물러나기 때문에 고프라부이다 ... 소멸인 열반으로 도약하기 때문에 고프라부이다.

일어남에서 물러나서 불생으로 도약하기 때문에 고프라부이다 ... 외부의 행의 표상에서 물러나서 소멸인 열반으로 도약하기 때문에 고프라부이다.⁴⁴⁾

이 설명에 따르면 ‘고뜨라부의 앞’이란 외부로부터의 벗어남과 물러남에 대한 지혜를 뜻하는데, 그 이유는 고프라부가 일어남 등을 극복하고 최종적으로 소멸인 열반으로 도약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외부’는 열반의 바깥에 있는 것으로 일어남 등과 같이 열반과 대비되는 윤회 또는 윤회를 야기하는 요소를 의미하고, 외부에서 벗어나고 물러남이란 그러한 요소들을 극복하고 열반으로 들어감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지혜가 바로 고프라부의 앞인 것이다.

고뜨라부는 일어남 등을 극복하고 벗어날 뿐만 아니라 열반으로 도약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도약하다’로 옮긴 ‘pakkhandati’는 pra + √skand(to leap, jump)에서 이루어진 동사로 ‘to spring forward’, ‘to jump on to’라는 뜻을 가진다.⁴⁵⁾ 다시 말해 고프라부는 지금까지의 윤회의 요소에서 떨어져 열반을 향해 뛰어오른 상태, 즉 열반을 향하는 최초의 상태인 것이다. 주석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리고 **극복하기 때문에 고프라부이다**란 범부의 종성을 극복하기 때문에 고프라부의 상태라고 말한 것이다. **도약하기 때문에 고프라부이다**란 성자의 종성을 생기게 하기 때문에 고프라부의 상태라고 말한 것이다.

44) Patis. I, 66.1-36-67.1-22.

45) PED, 381.

극복하고서 도약하기 때문에 고프라부이다란 두 가지 의미를 결합하여 말한 것이다.⁴⁶⁾

다시 말해 고프라부는 범부에서 벗어나 성자가 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갖추어진 상태를 말한다. 우리를 윤회에 묶어두는 여러 요소들을 극복하고 열반으로 이끌어주는 지혜인 이 고프라부의 얇은 성자의 과를 성취하기 위해서도 필요한데, 이것은 아래에서 살펴볼 ‘고프라부의 담마’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 고프라부의 담마

고프라부의 담마로는 사마타에 의해 생겨나는 여덟 종류와 위뿃사나에 의해 생겨나는 열 종류가 있다.

(a) 어떤 여덟 종류의 고프라부의 담마가 사마타에 의해 생겨나는가. 초선을 얻기 위해 장애를 극복하기 때문에 고프라부이다(*paṭhamajjhānaṃ paṭilābhatthāya nīvaraṇe abhibhuyayati ti gotrabhū*). 이선을 얻기 위해 일으킨 생각(尋)과 머무는 생각(伺)을 ... 삼선을 얻기 위해 기쁨을 ... 사선을 얻기 위해 행복과 괴로움을 ... 공무변처를 얻기 위해 형색에 대한 인식(想), 감각반응에 대한 인식, 다양성에 대한 인식... 식무변처를 얻기 위해 공무변처에 대한 인식을 ... 무소유처정을 얻기 위해 식무변처정에 대한 인식을 ... 비상비비상처정을 얻기 위해 무소유처정에 대한 인식을 극복하기 때문에 고프라부이다.

(b) 어떤 열 종류의 고프라부의 담마가 위뿃사나에 의해 생겨나는가. 예류도를 얻기 위해 일어남, [생사]유전, 표상, [업을 쌓는]노력, 결생, [사후에]갈 곳, 재생, 생, 탄생, 늙음, 병, 죽음, 슬픔, 비탄, 절망, 외부의 행의 표상을 극복하기 때문에 고프라부이다. 예류과의 성취를 위해 ... 일래도를

46) Paṭi-a. I, 275.5-9, “abhibhuyayati ti gotrabhū ti ca puthujjanagottābhibhavanato gotrabhūbhāvo vutto. pakkhandatī ti gotrabhū ti ariyagottabhāvanato gotrabhūbhāvo vutto. abhibhuyyitvā pakkhandatī ti gotrabhū ti ubho atthe samāsetvā vuttam.”

얻기 위해 ... 일래과의 성취를 위해 ... 불환도를 얻기 위해 ... 불환과의 성취를 위해 ... 아라한도를 얻기 위해 ... 아라한과의 성취를 위해 ... 공성(空性)에 머무름의 성취를 위해(suññatavihārasamāpattatthāya) ... 무상에 머무름[無相住]의 성취를 위해(animittavihārasamāpattatthāya) 일어남, [생사]유전 ... 외부의 행의 표상을 극복하기 때문에 고평라부이다.⁴⁷⁾

고뜨라부의 담마란 사마타와 위빳사나에 의해 생겨난 어떤 상태로서의 고평라부의 속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마타에 의해 생겨난 고평라부의 담마는 선정의 각 단계를 얻기 위해 극복되어야 할 요소가 제거된 상태를 뜻하며, 위빳사나에 의해 생겨난 고평라부의 담마는 각 도와 과를 얻기 위해 극복되어야 할 요소가 제거된 상태인 것이다. 사마타에 의해 초선에서 비상비비상처정까지의 여덟 단계가 성취될 때와 위빳사나에 의해 성자의 도와 과 등이 성취될 때, 각 단계에서 제거되어야 할 요소는 다르며 동일한 요소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거된 상태는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고평라부의 담마는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여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위빳사나에 의해 도와 과를 얻기 위해 각 단계에서 극복되어야 할 요소들은 앞서 살펴본 ‘고뜨라부의 앎’에 의해 극복되어야 하는 요소들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즉 고평라부의 앎이 도과의 단계인 성자의 단계를 성취하는 일에 기능한다는 것과 그 고평라부의 앎이 위빳사나를 통해 얻어진다는 것이다. 예류도에서 무상주까지 극복되어야 하는 요소는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각 단계에서 요소들이 극복되는 정도는 동일하지 않으며 그 극복을 위해 기능하는 고평라부의 앎 역시 그 깊이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의 단계에서 극복된 요소가 그 다음의 단계에 여전히 남아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위빳사나에 의해 생겨나는 고평라부의 담마는 열 가지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 주석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47) Patis. I, 67.23-36-68.1-21.

그런데 **사마타에 의해서**, 언급된 고평라부들 가운데 장애 등의 종성을 극복하기 때문에 고평라부이다. **예류과의 성취를 위해**라는 등의 여섯 가지 뛰어난 성취에서 일어남 등의 종성을 극복하기 때문에 고평라부이다. **일래도를 얻기 위해**라는 등의 여러 뛰어난 도에서 예류자 등의 종성을 극복하기 때문에 고평라부라는 뜻이라고 알아야 한다.⁴⁸⁾

즉 어떠한 단계를 얻기 위해 극복해야 할 요소들을 극복하기 때문에 고평라부라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몇몇 주석서들과 마찬가지로 고평라라는 ‘종성(gotta)’으로 설명되고, -bhu는 ‘극복(abhibhavana)’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⁴⁹⁾ 여기서 고평라라는 극복의 대상이지만 부정적인 성질을 가진 요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일래도를 얻기 위해서 예류자라는 종성을 극복하였기 때문에 고평라부라고 설명되고 있듯이 일래도 이상의 도를 얻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의 과를 가진 성자의 상태가 ‘고뜨라’가 되기 때문이다.

2. 『뺏타나』의 고평라부

앞서 살펴본 두 논장, 『뿍갈라뺏낫띠』와 『까타왓투』에서 고평라부가 성자가 되기 바로 전단계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과 달리, 『뺏타나』의 고평라부는 성자가 되기 직전의 하나의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에 고평라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패턴으로 나타난다.

- (a) 유학들은(sekhā) 과를 성찰하고 열반을 성찰한다. 열반은 고평라부의, 청정의, 도의 소연연(所緣緣)으로서의(ārammaṇapaccayena) 조건이다.⁵⁰⁾

48) Paṭiṣ-a. I, 275.13-18, “samathavasena vutta-gotrabhūnaṃ pana nīvaraṇādīgottābhibhavanato gotrabhū ti. sotāpattiphalasamāpattatthāyā ti ādisu chasu samāpattivāresu uppādādīgottābhibhavanato gotrabhū ti. sakadāgāmiṃmaggaṇapattābhatthāyā ti ādisu maggavāresu sotāpannādīgottābhibhavanato gotrabhū ti attho vedittabbo.”

49) cf. von Hinüber 1994, 97-99. von Hinüber는 인드라의 다른 이름인 vatrabhū(vatra라는 이름을 가진 이수라의 정복자)에 대한 주석서의 설명에서 -bhū가 abhibhavati로 해석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50) Tikap. 157.1-3.

- (b) 수순은(anulomam) 고프라부의, 수순은 청정의, 고프라부는 도의, 청정은 도의 무간연(無間緣)으로서의(anantarapaccayena) 조건이다.⁵¹⁾
- (c) 유학들은 고프라부를 증시하여 성찰하고, 청정을 증시하여 성찰한다. 유학들은 도에서 나와 [스스로 얻은] 도를 증시하여 성찰한다.⁵²⁾

(a)에서 열반이 고프라부의 소연연으로서의 조건이라는 것은 열반을 조건으로 해서, 다시 말해 열반을 대상으로 해서 고프라부가 생겨난다는 뜻이다. 열반은 범부에게는 파악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프라부가 범부의 단계에서 벗어나 성자의 단계에 들어가는 위치에 있음을 잘 보여준다. (b)를 통해서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고프라부는 도의 무간연으로서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고프라부에 이어 바로 도가 일어난다는 뜻으로, 수순에서 고프라부로 그 뒤에 도로 이어지는 과정이 틈없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c)에 따르면 유학은 고프라부를 성찰한다. ‘성찰한다(paccavekkhati)’는 것은 무언가를 경험한 후에 그것을 되돌아보며 관찰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 말은 유학이 되기 전에 고프라부의 단계를 지나왔음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유학은 고프라부뿐만 아니라 ‘청정(vodāna)’도 성찰한다. 이에 대해 주석서는 “**유학은 고프라부를**이란 예류자에 관해 설해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고프라부를 성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정을**이란 일래자와 불환자에 관해 설해진 것이다. 그들은 그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이다.”⁵³⁾라고 설명한다. 즉 고프라부는 예류자와, 청정은 일래자 및 불환자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청정’이라는 용어는 (a)와 (b)의 용례에서도 나타나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용례를 통해 고프라부는 열반을 대상으로 하여 예류도의 직전 단계에서 한번만 경험되며 수순의 뒤, 도의 앞에서 얻어지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

51) Ibid., 159.9-10.

52) Ibid., 157.31-34.

53) Tikap-a. 270: sekkhā gotrabhun tī sotāpannam sandhāya vuttaṃ. so hi gotrabhuṃ paccavekkhati. vodānanā tī idaṃ pana sakadāgāmiānāgāmino sandhāya vuttaṃ. tesañhi taṃ cittaṃ vodānaṃ nāma hoti.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위숫디막가』의 고프라부

『뻗타나』에서와 같이 마음의 순간적 상태로서 고프라부를 해석하는 것은 『위숫디막가』에서 ‘속행(javana)’설로 나타난다.⁵⁴⁾ 『위숫디막가』에는 우리의 인식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에 관해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데,⁵⁵⁾ 고프라부는 인식과정 가운데 속행의 일부로서 일어나는 것이다.

『위숫디막가』에 따르면 우리의 인식에 관여하는 마음은 모두 14가지이다. 즉 ①결생(結生, paṭisandhi) ②바왕가(有分, bhavaṅga) ③전향(āvajjana) ④봄(dassana) ⑤들음(savana) ⑥냄새 맡음(ghāyana) ⑦맛봄(sāyana) ⑧닿음(phusana) ⑨반아들임(sampaticchana) ⑩조사(santīraṇa) ⑪확정(votṭhabbana) ⑫속행(javana) ⑬그것을 대상으로 함(tadārammaṇa) ⑭죽음(cut)이 바로 그것이다. 평생 한번 밖에 생기지 않는 ①‘결생’과 ⑭‘죽음’의 마음을 제외하고 ②‘바왕가’⁵⁶⁾에서 ⑬‘그것을 대상으로 함’까지를 인식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모든 상황에서 이 모든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즉 인식이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 생겨나는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욕계에서 인식 대상이 선명하고 인상적일 때에는 모든 단계의 마음(④‘봄’에서 ⑧‘닿음’까지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만)이 일어나지만, 선정 혹은 출세간에 들어가려는 순간에는 ④

54) 高崎直道 앞의 논문, 325.

55) Vism. 387-391 참조. 인식과정은 『위숫디막가』에서 처음으로 정리되어 설해하지만, 위에서 보듯이 『뻗타나』에 이미 고프라부 뿐만 아니라 ‘수순’이라는 마음의 상태가 나타나며, 바왕가(bhavaṅga)가 전향(āvajjana)에 대한 무간연으로서의 조건이라고도 설해진다.

56) ‘바왕가’란 bhava+ṅga에서 만들어진 복합어로, ‘존재의 구성요소(constituent of being), 잠재적 의식 혹은 잠재적인 생의 연속체(subliminal consciousness or subconscious life-continuum)’를 뜻한다.(PED, p. 499) 아비담마에 의하면 이 잠재의식들은 한 개체가 삶의 과정에서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 연속성을 유지시켜주는 요인이 되는 것을 그 역할로 하는 중요한 마음이다.(대립스님·각목스님, 『아비담마 길라잡이(상)』, p.293) 바왕가는 하나의 생명체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되어 수명이 끝날 때까지 끊이지 않고 흐르는 의식인 것이다. 모든 인식과정은 반드시 이 바왕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즉 바왕가가 계속 흐르는 가운데 어떤 대상을 만나면 그 대상에 대해서 일련의 인식 과정이 일어나고, 그 과정이 끝나면 다시 바왕가로 들어간다. 대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 바왕가는 계속된다.(bhavaṅga에 대해서는 Collins 1990, 225-261 참조)

‘봄’에서 ⑪‘확정’까지의 마음들은 생겨나지 않고 ③의 ‘의문전향’⁵⁷⁾ 후에 ⑫의 ‘속행’⁵⁸⁾이 바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고프라부는 이렇게 선정을 얻을 때와 출세간에 들어갈 때의 속행 가운데 하나의 마음으로 생겨난다.

1) 선정을 얻을 때의 고프라부

선정에서 고프라부가 생겨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이렇게 해서 표상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있는 어떤 이에게 이제 안지[정](安止定)이 성취될 것이라 하여 바왕가를 끊고 ‘땅, 땅’이라고 전념함으로써 나타나 있던 그 지편을 대상으로 의문전향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 네 개, 혹은 다섯 개의 속행이 일어난다. 그 가운데 마지막에 있는 하나는 색계[의 것]이고 나머지는 욕계[의 것]이다. [이 욕계의 속행들은] 보통의 마음보다 힘이 강한 ‘일으킨 생각(壽)·머무는 생각(伺)·기쁨(喜)·행복(樂)·마음이 한곳에 집중됨(心一境性)’을 가진, 안지[정]을 위한 준비의 것이기 때문에 준비[의 마음]이라고도 [불린다]. 마치 마을 등에 가까운 장소가 마을의 근접한 곳, 도시의 근접한 곳이라고 불리듯이 안지[정]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또는 접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접[의 마음]이라고도 [불린다]. 이보다 앞의 준비[의 마음]에 그리고 뒤의 안지[정]에 수순하기 때문에 수순[의 마음]이라고도 불린다. 여기서 마지막의 것은 제한된 종성을 극복하기 때문에, 또 위대한 종성을 생기게 하기 때문에 고프라부라고도 불린다.

그런데 취해지지 않은 것을 취하기 때문에 여기서 최초[의 마음]은 준비, 두 번째 [마음]은 근접, 세 번째 [마음]은 수순, 네 번째 [마음]은 고프라부이다. 또는 최초[의 마음]이 근접, 두 번째 [마음]이 수순, 세 번째 [마음]

57) ‘전향’이란 ā + √vrj(to turn)에서 만들어진 중성명사로, 마음이 대상을 향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이 출현하여 바왕가가 흔들리고 끊어지면 마음은 그 대상을 향하게 된다. 전향에는 눈(眼)·귀(耳)·코(鼻)·혀(舌)·몸(身)의 오문(五門)으로 향하는 오문전향(pañcadvāra-āvajjana)과 의식(意)으로 향하는 의문전향(manodvāra-āvajjana)의 두 가지가 있다.

58) ‘속행’이란 √jū/ju(be quick)에서 파생된 중성명사로, 확정된 대상을 재빨리 이해하는 작용을 말한다. 속행은 선악의 업을 만드는 마음이고 최대 일곱 번 일어난다. 욕계에서 이 속행은 전부 동일한 마음이지만 선정이나 도의 인식과정에서는 다른 종류의 마음이 될 수 있다.

이 고프라부이다. [따라서] 네 번째 [마음] 또는 다섯 번째 [마음]이 안지의 마음이다. 왜냐하면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속행]이 안지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빠른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느린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른다. 그 후 속행은 떨어지고 바왕가의 순서가 된다.⁵⁹⁾

선정에 들어갈 때에는 의문전향 후에 네 번 혹은 다섯 번의 속행이 일어난다. 그 가운데 마지막의 것만이 색계의 첫 즉 선정에 들어갈 때의 것이고, 앞의 세 가지 혹은 네 가지는 욕계의 것이다. 이 욕계의 속행은 차례대로 ‘준비’, ‘근접’, ‘수순’, ‘고뜨라부’라고 불리고 마지막의 것은 색계 선정에 속하는 ‘안지’의 마음이다. 속행은 어떠한 지혜를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횟수로 일어난다. 즉 느린 지혜를 지니고 있다면 준비에서 고프라부까지의 욕계에 속하는 네 개의 속행과 안지라는 색계에 속하는 하나의 속행, 이렇게 모두 다섯 개의 속행을 거치지만, 빠른 지혜를 지니고 있다면 준비의 단계를 제외하고 근접에서 고프라부까지의 세 개의 욕계 속행과 하나의 색계 속행을 거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속행의 과정은 초선에서 제4선까지 각 선정을 얻을 때마다 이루어진다.

고뜨라부는 욕계에 속하는 속행의 마음이다. 그렇지만 제한된 종성을 극복하고 위대한 종성을 생기게 하기 때문에 고프라부라고 불린다는 설명에서 보듯이, 욕계에서 떠나 색계로 들어가기 직전의 순간의 마음으로서, 준비 등의 속행과 달리 욕계와 색계의 경계선에 있으며 다른 욕계의 속행들과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선정을 얻을 때의 인식과정>

- (a) 느린 지혜를 지니는 경우: 바왕가 → 의문전향 → 속행(준비) → 속행(근접) → 속행(수순) → 속행(고뜨라부) → 속행(안지[정]) → 바왕가
- (b) 빠른 지혜를 지니는 경우: 바왕가 → 의문전향 → 속행(근접) → 속행(수순) → 속행(고뜨라부) → 속행(안지[정]) → 바왕가

59) Vism. 111.24-37-112.1-4.

2) 출세간에 들어갈 때의 고프라부

『위숫디막가』의 내용은 이른바 칠청정(七淸淨)의 체계⁶⁰⁾로 구성되어 있다. 칠청정이란 ①계의 청정(sīlavissuddhi), ②마음의 청정(cittavissuddhi), ③견해의 청정(ditṭhivissuddhi), ④의심을 극복함에 따른 청정(kaṅkhāvitaraṇavissuddhi), ⑤도와 도 아남에 대한 앎과 봄의 청정(maggāmaggañānadassanavissuddhi), ⑥실천에 대한 앎과 봄의 청정(paṭipadāñānadassanavissuddhi), ⑦앎과 봄의 청정(ñānadassanavissuddhi)이라는 일곱 가지 단계별 청정을 말한다. 출세간에 들어갈 때의 고프라부는 이 가운데 ⑥과 ⑦의 사이에서 생겨나며 ‘고프라부의 앎(gotrabhūñāṇa)’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난다.

위의 일곱 단계 가운데 ⑤와 ⑥의 청정을 통해 도와 과의 성취로 이끄는 열 가지 위빳사나의 앎이 생겨나게 된다.⁶¹⁾ 이 열 가지 앎은 위빳사나 수행을 통해서 차례대로 얻어지게 되는데 그 마지막이 ‘수순의 앎(anulomañāṇa)’이라는 것이다. 이 앎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 직전의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앎(saṅkhārūpekkhāñāṇa)’에서 행해진 방식대로 상카라를 대상으로 하여 무상이나 고나 무아라고 하면서 의문전향이 일어나고 이어서 세 개의 속행의 마음(javanacitta)이 생겨나게 된다. 이것들이 차례대로 ‘준비·근접·수순’이라고 불리는 마음으로,⁶²⁾ 고프라부의 앎은 바로 이 수순의 마음 뒤에 얻어진다.

이 [수순의 앎] 뒤에 고프라부의 앎이 있다. 이것은 도로 전향하는 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천에 대한 앎과 봄의 청정’에도 ‘앎과 봄의 청정’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름을 갖지 않을 뿐이다. 그

60) 칠청정의 개념은 『맛지마니까야』의 「라타위니파숫따(Rathavinītasutta, MN. I, 147-148)」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61) 열 가지란 ㉠[무상·고·무아를] 파악하는 앎(sammasaṇāṇa) ㉡생명의 수관에서의 앎(udayabbayānupassanāñāṇa) ㉢과과의 수관에서의 앎(bhaṅgānupassanāñāṇa) ㉣공포로서 나타나는 것에서의 앎(bhayatupaṭṭhāṇāñāṇa) ㉤위험의 수관에서의 앎(ādināvanupassanāñāṇa) ㉥혐오의 수관에서의 앎(nibbidānupassanāñāṇa) ㉦해탈을 원함이라는 앎(muñcītukamyatāñāṇa) ㉧숙고에 의한 수관에서의 앎(paṭisaṅkhānupassanāñāṇa)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앎(saṅkhārūpekkhāñāṇa) ㉩수순의 앎(anulomañāṇa)으로, 위빳사나 수행을 계속하면 이 앎이 차례대로 얻어진다.

62) cf. Vism. 575-576.

리나 위뿃사나의 흐름에 든 것이기 때문에 위뿃사나라고 불린다. 예류도, 일래도, 불환도, 아라한도의 네 가지 도의 얹이 ‘얹과 봄의 청정’이다.⁶³⁾

고뜨라부의 얹은 수순의 얹을 얻은 후에 도에 들어가기 직전의 단계에서 얻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칠청정 가운데 ‘실천에 대한 얹과 봄의 청정’과 ‘얹과 봄의 청정’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그 사이에 위치하며 이름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위뿃사나의 흐름에 들었기 때문에 위뿃사나라고 불린다. 이것은 고뜨라부의 얹이 ‘벗어남으로 이끄는 위뿃사나’의 마지막이라는 설명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⁶⁴⁾ 벗어남으로 이끄는 위뿃사나라는 집착의 토대가 되는 외부의 표상 등의 벗어남으로 가는 위뿃사나를 말하는데,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얹과 수순의 얹, 그리고 고뜨라부의 얹에 대한 이름이다.⁶⁵⁾ 고뜨라부의 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이 이어진다.

이제 그에게 모든 표상과 진행된 대상이 장애로서 나타나고 수순의 얹의 반복이 끝날 때 고뜨라부의 얹이 생겨난다. [이것은] 표상이 없고 진행이 없고 형성을 벗어났고 소멸인 열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범부라는 종성, 범부라는 명칭, 범부의 계위를 넘어서 성자라는 종성, 성자라는 명칭, 성자의 계위에 들어가는 것이다. 열반이라는 대상에 대한 최초의 진입, 최초의 관념, 최초의 집중이고, 도에 대한 틈 없음[無間]·더욱 틈 없음[極無間]·반복[習行]·강한 의지[親衣]·없음[非有]·떠나감[離去]이라는 여섯 가지 양태로써 조건을 성취하는 정점에 달한 위뿃사나의 최고의 상태이며 다시 되돌아감이 없다.⁶⁶⁾

63) Vism. 577.8-13.

64) Vism. 576.9-11, “이 수순의 얹은 상카라를 대상으로 하는 벗어남으로 이끄는 위뿃사나의 마지막이다. 그러나 전체로서는 고뜨라부의 얹이 벗어남으로 이끄는 위뿃사나의 마지막이다.”

65) Vism 567.17-24, “이와 같이 상카라의 평온을 얻은 선남자의 정점에 이른 위뿃사나는 벗어남으로 이끌어진다. 정점에 이른 위뿃사나 또는 벗어남으로 이끄는 [위뿃사나]는 상카라의 평온 등 세 가지 얹에 대한 이름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최상의 상태를 얻었기 때문에 정점에 이른 것이고, 벗어남으로 가기 때문에 벗어남으로 이끄는 것이다. 벗어남이란 외부의 표상인 집착의 토대로부터 그리고 안의 나아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도라고 부른다. 그것으로 가기 때문에 벗어남으로 이끄는 것이며, 도와 함께 결합된다는 의미이다.”

상카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던 수순의 얇까지와 달리 고프라부의 얇은 열반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얇이다. 이것은 범부에서 벗어나서 성자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도에 대한 무간연 등의 조건이 되는 것이며 정점에 달한 위빳사나의 최고의 상태이다.

도에 들어갈 때에도 선정을 얻을 때와 유사한 속행의 과정을 거친다. 차이가 있다면 선정의 획득에서 속행은 네 번 또는 다섯 번 일어나는 반면, 도의 성취에서는 도의 뒤에 그 결과로서의 과의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속행의 최대수인 일곱 번 일어난다는 것이다. 예류도에서 아라한도까지 각 단계에서 느린 지혜를 지니고 있는 경우는 도의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준비-근접-수순-고프라부’라는 속행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빠른 지혜가 있는 경우는 ‘준비’의 단계가 제외되어 고프라부가 세 번째 속행이 된다.

<도에 들어갈 때의 인식과정>

- (a) 느린 지혜를 지니는 경우: 바왕가 → 의문전향 → 속행(준비) → 속행(근접) → 속행(수순) → 속행(고프라부) → 속행(도의 마음) → 속행(과의 마음) → 속행(과의 마음) → 바왕가
- (d) 빠른 지혜를 지니는 경우: 바왕가 → 의문전향 → 속행(근접) → 속행(수순) → 속행(고프라부) → 속행(도의 마음) → 속행(과의 마음) → 속행(과의 마음) → 바왕가

66) Vism. 577.24-32.

V. 나가는 말

지금까지 니까야와 아비담마 문헌에 나타나는 고프라부의 개념과 그 발전 양상에 대해 고찰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빨리 문헌에는 ‘가계’나 ‘혈통’을 뜻하는 용어인 gotta와 별도로 산스끄리트어 형태를 띤 ‘gotra’에 ‘bhū’가 결합된 술어인 gotrabhū(고프라부)가 발견되며, 이것은 특수한 의미를 지닌다. 고프라부가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 바른 행위를 하지 않지만 승단에 속해있어 보시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맛지마니까야』의 용례를 제외하고, 『앙굿따라니까야』와 논장인 『뽉갈라뽠냐띠』 그리고 『까타왓투』에서는 성자의 첫 단계인 ‘예류도의 성자’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 이들은 니까야에서 정형적으로 설해지는 성자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성자와 대등하게 존경받을 만한 존재로 인정되어, 사문이라는 이름만을 가진 채 성자와 거리가 먼 사람으로 묘사되는 『맛지마니까야』의 고프라부와 반대의 개념을 띤다. 상반되는 두 가지 의미 가운데 어느 것이 고프라부가 가진 본래의 의미였는지는 확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찰이 필요하겠지만, 이후에 성립한 문헌들의 용례에서 고프라부는 성자와 관련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자의 직전 단계의 사람을 뜻하는 고프라부의 의미가 우세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어떠한 상태나 조건을 갖춘 사람을 뜻하던 고프라부의 의미는 점차 그 사람이 지닌 마음이나 인식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쿠타까니까야』에 속하지만 아비담마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는 『빠띠삼비다막가』에서 고프라부는 ‘고프라부의 앗’과 ‘고프라부의 담마’라는 복합어의 형태로 등장한다. 여기서 고프라부는 윤회를 일으키는 요소들을 극복하고 소멸인 열반으로 도약하는 최초의 상태이며, 선정이나 성자의 도과(道果)를 얻기 위해 극복되어야 할 요소가 제거된 상태를 나타낸다. 고프라부는 이와 같이 『빠띠삼비다막가』에서 새로운 해석으로 전개되고 『뽏타나』에서는 명확히 하나의 인식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발전한다. 여기서 고프라부는 예류도

의 직전 단계에서 한번만 경험되며 수순의 뒤, 도의 앞에서 얻어지는 하나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위숫디மாக가』의 속행설로 이어져 고평라부는 선정을 얻을 때와 출세간에 들어갈 때 각각 본삼매와 성자의 도 직전의 속행의 마음을 의미하게 된다.

한편 몇몇 주석과 복주서의 설명을 통해 고평라부라는 술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빠띠삼비다மாக가』의 서술방식처럼 주석서 등에는 왜 고평라부라고 불리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어떠한 요소나 종성(gotta)을 극복하고 뛰어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이때 ‘gotra’는 범부나 장애라는 부정적 의미의 종성은 물론 이전의 도과와 같은 긍정적 요소까지 포함한 극복의 대상을, ‘-bhū’는 ‘극복(abhibhavana)’을 의미한다. 둘째는 성자라는 종성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생기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이 경우 ‘gotra’는 성자라는 긍정적 의미의 종성을, ‘-bhū’는 ‘생성(bhāvanā)’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사문이라는 종성만을 지니고 유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이때 ‘gotra’는 사문이라는 이름으로서의 종성을, ‘-bhū’는 ‘유지(dhāraṇa)’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참고 문헌 REFERENCES

◆ 약호 및 일차 문헌 ABBREVIATIONS AND PRIMARY SOURCES

- AN *Aṅguttaranikāya*, 5vols., PTS.
- DN *Dīghanikāya*, 3vols., PTS.
- Kv *Kathāvatthu*, PTS.
- MN *Majjhimanikāya*, 3vols., PTS.
- Monier *A Sanskrit-English Dictionary*, Sir Monier Monier Williams, Oxford: Clarendon Press, 1899.
- Mp *Manorathapūraṇī (Aṅguttaranikāya-aṭṭhakathā)*, 5vols., PTS.
- Mp-pṭ *Sāratthamañjūsā (Manorathapūraṇī-purāṇaṭīkā)*, Chaṭṭasangitipitaka edititon, 1961.
- Nidd I *Mahāniddeśa*, PTS.
- Paṭis *Paṭisambhidāmagga*, 2vols., PTS.
- Paṭis-a *Saddhammapakāsinī (Paṭisambhidāmagga-aṭṭhakathā)*, 3vols., PTS.
- PED The Pāli Text Society's Pāli-English Dictionary, PTS, 1921-25, repr. 1992, 1995, repr. with corrections 2015.
- Ps *Papañcasūdanī (Majjhimanikāya-aṭṭhakathā)*, 5vols., PTS.
- Ps-pṭ *Līnatthappakāsinī (Papañcasūdanī-purāṇaṭīkā)* Chaṭṭasangitipitaka edititon, 1961.
- Pp *Puggalapaññatti*, PTS.
- Pp-a *Puggalapaññatti and Puggalapaññatti-aṭṭhakathā*, PTS.
- SN *Samyuttanikāya*, 5vols., PTS.
- Sp *Samantapāsādikā (Vinaya-aṭṭhakathā)*, PTS
- Sn *Suttanipāta*, PTS.
- Tikap *Tikapāṭṭhāna, Tikapaṭṭhāna and aṭṭhakathā*, 3vols., PTS.
- Tikap-a *Tikapāṭṭhāna-aṭṭhakathā*, PTS.
- Vism *Visuddhimagga of Buddhaghosācariya*, ed., Henry Clarke Warren, Dharmananda Kosambi (rev.), Harvard Oriental Serie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0(repr. Delhi, 1989).

◆ 이차 문헌 SECONDARY LITERATURE

- COLLINS, Steven. 1990. *Selfless persons: imagery and thought in Theravāda Buddhis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ELIM (대림)·GAKMUK (각목) tr. 2004. 『아비담마 길라잡이』 [*Abhidhammatthasaṅgaha*] (상) (하), Ulsan: 초기불전연구원 (Center of Early Buddhist Studies).
- LAW, Bimala Charan tr. 1992. *Designation of human types (Puggala-paññatti)*, Oxford: Pali Text Society.
- NORMAN, Kenneth Roy. 1987. “Pāli Lexicographical Studies IV”, *Journal of the Pāli Text Society*, 11th, 37-39.
- SEYFORTH RUEGG, David. 1974. “Pāli Gotta/Gotra and the Term Gotrabhū in Pāli and Buddhist Sanskrit”, *Buddhist Studies in Honour of I. B. Horner*, Dordrecht, Boston: D. Reidel Pub. Co., 199-210.
- _____. 1981. “A Further note on Pāli GOTRABHŪ”, *Journal of the Pāli Text Society*, 9th, 175-177.
- TAKASAKI, Jikido (高崎直道). 1966. 「GOTRABHŪとGOTRABHŪMI」 [“gotrabhū and gotrabhūmi”], 『印度学仏教学論集：金倉博士古稀記念』 (**Collection of Papers of Indology and Buddhist Studies of Dr. KANAKURA's Age Seventy*), Kyoto: 平楽寺書店(Heirakutera Book Store), 313-336.
- _____. 1967, 「GOTRABHŪMI覚え書-特に般若經の十地をめぐる-」 [*Notes of Gograbhūmi; especially, daśabhūmi of *Prajñāpāramitāsūtra*], 『駒沢大学仏教学部研究紀要』 (*The Journal of the Faculty of Buddhism of Komazawa University*), vol. 25, 1-27.
- von Hinüber, Oskar. 1994. “Pāli Gotrabhū: The Origin and Early Linguistic History of a Philosophical Term”, *Selected Papers on Pāli Studies*, 91-100.
- _____. 1996. *A Handbook of Pāli Literature*, Berlin: Walter de Gruyter.
- WIJESEKERA, O.H. de A. 2006(1979). “The Etymology of Pali gotrabhū”, *Studies in Pali and Buddhism*, 381-382.

A Study of *Gotrabhū* in Pāli Literature - Focused on the concept and its development

Han, Sang-Hee
Lecturer, Department of Philoso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examines the concept of ‘*gotrabhū*’ and its development in Pāli literature from *Nikāya* to *Abhidhamma*.

In Pāli literature, we can find a technical term ‘*gotrabhū*’, a combination of ‘*gotra*’ and ‘*bhū*’; ‘*gotra*’ is Sanskrit form of Pāli *gotta* meaning ‘lineage’. When ‘*gotrabhū*’ refers to a person, in *Majjhimanikāya* ‘*gotrabhū*’ is described as a person who acts inappropriately and is far from a saint. But in *Ānguttaranikāya*, *Puggalapaññatti* and *Kathāvatthu*, it means a person who is in the state just before entering *Sotāpattimagga*, the first stage of saints.

And it seems that the meaning of ‘*gotrabhū*’, which meant a person who has a state or condition to become a saint, has gradually developed to refer to the state of mind or awareness that such person possesses. In *Paṭisambhidāmagga*, ‘*gotrabhū*’ means the first state of leaping into *nibbāna* and the state in which the elements that must be overcome in order to attain *jhānas* or the paths of the saints are removed, and this presents a new interpretation. In *Paṭṭhāna*, it develops into a concept that clearly represents a state of awareness, meaning a state of mind that is experienced only once just before the *Sotāpattimagga*. This leads to the theory of *javana* in *Visuddhimagga*, in which ‘*gotrabhū*’ means one of the mind of *javana* just before *samādhis* and the path of the saints, at the time of attaining *jhānas* and entering *lokuttara* respectively.

Also, according to the explanations of commentaries and subcommentaries, the meaning of ‘*gotrabhū*’ can be interpreted as three ways: first, overcoming (*abhibhavana*) negative factors such as *puṭhujjana* or *nīvaraṇa* and positive factors like previous *magga* or *phala*; second, producing (*bhāvanā*) the lineage of saints; and third, maintaining (*dhāraṇa*) of just the name of *samaṇa*.

Keywords

gotrabhū, ariya, nibbāna, Nikāya, Paṭisambhidāmagga, Visuddhimagga

2021년 11월 12일 투고

2021년 12월 12일 심사완료

2021년 12월 19일 게재확정

